

金 炳 億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바퀴의 이미지를 응용한 陶磁造形 研究

2004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李 安 玲

論 文 概 要

삶은 모든 현상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생성(生成), 성장(成長), 소멸(消滅) 되고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어 무한히 되풀이 되는 끊임없는 순환과 반복의 과정이다.

하나의 개체가 소멸된다 해도 이것이 다시 새로운 세대의 시작으로 이어짐으로써 삶은, 그 고리를 이어나간다.

본 연구는 이렇듯 삶의 모습 속에 내재되어있는 순환과 반복의 과정을 “윤회”(輪廻)적 관점에서 풀이 해 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바퀴라는 매개체 속에 담아 표현하고자 한다.

즉, 개개인마다 다르게 부여되는 삶의 모습을 인지하고 윤회라는 삶의 가역적 구조안에서 순간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개인의 의지에 대한 절대성을 통하여 인간이 곧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따라서, 내면의 형상화 과정에 있어서 바퀴가 갖고 있는 외적 이미지를 나와 동일선상에 놓고, 표현의 매개체로서 존재하는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아닌, 또다른 나의 모습으로 재분석하였다.

작품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바퀴의 외형적 이미지 그대로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기보다 특정부분의 절제되고 생략화된 이미지로 삶의 근원적인 부분을 연결시켜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며 화살표를 이용한 방향성의 제시로 현대사회가 야기시키는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탈출을 모색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또한, 주체가 갖고 있는 내면적 힘을 재료의 덩어리감을 살려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속에서 삶의 다양함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화 되어가는가 하는 과정의 변화양상을 알아보았다.

目 次

論 文 概 要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內容 및 方法	2
II. 本 論	3
1. 바퀴의 象徵的 意味	3
2. 造形的 考察	4
1) 운동성	4
2) 반복성	5
3) 연속성	6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9
1) 製作意圖	9
2) 製作過程	10
(1) 胎土	10
(2) 成 形	11
(3) 釉 藥	11
(4) 燒 成	13
3) 試作品 說明	14
III. 結 論	35

參 考 文 獻

ABSTRACT

表 目 次

<표 1> 산백토 조합비	10
<표 2> 흑유 조합비	12
<표 3> 망간 골드유 조합비	12
<표 4> 백매트유 조합비	12
<표 5> 소성 온도표	13

圖 版 目 次

【도판1】 바퀴의 다양한 이미지	7
【도판2】 바퀴의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들	8

試作品 目次

【시작품 1】 내 마음의 바퀴	15
【시작품 2】 내가 멈춰선 이유	17
【시작품 3】 어디로?	19
【시작품 4】 하나됨을 향한 그들의 향해	21
【시작품 5】 너의 관점, 나의 관점	23
【시작품 6】 그가 지나간 후 나는 어지럽다.	25
【시작품 7】 길에 대한 두가지 기억	27
【시작품 8】 그래도 계속 전진	29
【시작품 9】 Must go!	31
【시작품 10】 바퀴, 삶 그 편린들...	33

I. 序 論

1. 研究目的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또한, “회전한다” 는 물리적인 특성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순환적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질서 속에 숨어 있는 많은 순환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이러한 법칙이 곧 인간의 본질적 삶의 내용과 기본적 틀을 같이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종교적인 사상으로서의 윤회론(輪廻論) 보다는 삶의 이치에 나타나는 돌고 도는 순환의 과정을 윤회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현재 상황의 소중함에 대한 의미와 함께 삶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고 그 의미를 조형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본 연구작품에서는 인간과 삶의 절대적 순환 관계가 “바퀴” 라는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형상화된 심성표출욕구와 그 목적을 함께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에서부터 문제제기를 시작한다.

인간의 욕구와 갈등을 포괄한 모든 삶의 순간에 대한 표식으로서 “바퀴”라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바퀴”와 “나”자신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주관적 심상에 의한 다양한 표현과 극복 의지로 현대인들의 고독하고 나약한 생활 속에 희망이 깃든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심상에 의한 희망의 메신저인 바퀴를 형상화하는데 있어 보다 자유로운 발상으로 도자 표현영역의 확장과 긍정적인 삶을 위한 정신적 여유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研究內容 및 方法

본 연구는 바퀴가 갖는 형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사회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바퀴의 모습으로 재분석하고, 그 상징성을 바탕으로 조형적 특성과 주관적 의미를 분석하여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즉, 바퀴를 단지 “이동”과 “소통”을 상징하는 바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대변하는 표현의 매개체로서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시각적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윤회사상을 바퀴의 개념적 형태를 통해 드러내었고 바퀴를 윤회하는 삶의 대표적인 유기체¹⁾로 보아, 삶의 모습이 다양성을 띄고 있듯이 바퀴에 대한 조형적 표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을 예상하였다.

이에 먼저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바퀴가 내포 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찾아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상징성을 바탕으로 삶과 바퀴와의 연결고리를 조형적인 측면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순환과 윤회의 법칙과 질서안에서 바퀴와의 유사점을 찾고, 이를 조형적 의미로 재분석하는데 의의를 두며 또한 이러한 유사점에서 생성, 성장, 소멸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운동성있는 선과 단순한 형태안에서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 제작 방법은 주로 판성형을 위주로 하였으며 바퀴의 세밀한 묘사에 치중하기보다는 형태의 다양성에 비중을 두어 제작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의지가 가져오는 삶의 다양함과 절대성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유약에 있어서도 짙은 발색의 유약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형상의 무게감을 이끌고자 단색으로 분무시유를 시도하였다.

1)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진 것.

II. 本 論

1. 바퀴의 象徴的 意味

바퀴는 이동을 상징한다. 과거의 바퀴는 단지 운송수단의 한 방법으로서 무거운 짐 또는 대량의 물건을 손쉽게 운반할수 있도록 고안된 아주 오래된 생활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하였다.

과거의 “이동” 또는 “운반”의 수단인 바퀴에서 현대의 바퀴가 상징하는 확장된 의미로서의 바퀴까지는 그 시간 만큼이나 많은 형태적, 의미적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에 와서 해석되는 바퀴는 초고속 무선망을 통한 인터넷의 발달이나 교통의 발달, 미디어 보편화로 인해 그 수단은 좀더 고급화 되어지고 발달하였으나 과거와 동일하게 모든 의사와 정보를 소통하는 매개물로서 가치를 이어 왔으며 때로는 문명 발달의 매개, 또 나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순환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매개물로 해석 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바퀴의 상징적 의미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순환계의 대표로서 보다 더 많은 의미와 함께 삶의 틀을 갖춘 조형물로 해석하고자 한다.

즉, 바퀴가 상징하는 의미는 현대사회속에서 규격화되어진 삶에 대한 표현이며 주제가 갖고있는 비가역적²⁾ 역할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숙명적 의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바퀴의 주된 조형요소인 “원”이 운동감, 반복성, 연속성등 일정한 순환적 주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삶과 그 모습이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2) 가역(可逆)[명사] 다시 본디의 상태로 돌아킬 수 있음.

이러한 비가역적, 순리적 삶의 모습을 통하여 순환하는 유기체인 바퀴를 삶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삶 속에서의 바퀴는 선택에 대한 원인과 결과 또는 세대를 통한 세습의 형태로, 돌고도는 순환 속에서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의 주관적 사상과 결합되어질때 저마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

2. 造形的 考察

조형작품은 대상의 직접 또는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나타나는 이미지이며 이는 개인의 의식상태에 의해 변형되거나 왜곡되어진 형상으로 구체화 된다.

일반적으로 바퀴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 가장 큰 이미지는 회전 of 이미지를 갖고있는 “원” 이다.

원은 가장 단순한 곡선으로 그것의 시각적인 운동감, 무한함 이외에도 우주공간, 태양, 생명의 근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순환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순환구조에서 운동성, 반복성, 무규정성등의 조형언어를 발견할수있었다.

1) 운동성

물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위치로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을 운동이라 한다.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운동은 강한 지지각의 대상이 된다.³⁾

3) 루돌프아론 하임 저, 『미술과 지지각』, 김춘일 역 (서울 : 혼성사, 1981), p.483.

또한 순환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생물학적 의미에서도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연 순화현상의 운동성을 유추해낼 수 있다.

모든 사물의 생성부터 소멸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운동성 등이 바로 그러한 점이다.

이러한 현상에서 볼수 있듯이 움직임에 대한 현상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바퀴라는 조형물을 순환이 가지는 역동적 이미지에 대입시켜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반복성

반복은 동일한 요소나 대상을 둘 이상 배열(排列)하는 것이다. 4)

이때 일어나는 시각적 효과로는 하나의 형태가 확산되거나 축소되어 무한히 계속 될것같은 착시(錯視) 현상을 가져다 주거나 형태의 반복을 통해 그 형태가 지닌 메시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반복은 매우 단조롭고 통일을 얻기 쉬운 단순 반복과 여러 가지 변화를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복잡반복이 있는데, 복잡한 리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반복은 흔히 교차(交叉)라고 부른다.

이는 선, 면, 방향, 텍스츄어 기타 색의 대립이나 대비에 의해 그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반복현상은 곧 윤회의 근본원리(根本原理)로 볼 수 있는데 동식물의 생사와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풀이 되어 일어나는 과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이경성, 「공예통론」 (서울 : 지학사, 1995), p.113.

즉, 순환의 과정도 그러한 윤회속의 한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바퀴의 형태안에서 반복의 의미를 발견하여 그 의미를 형태학적으로 분석, 표현하고자 한다.

3)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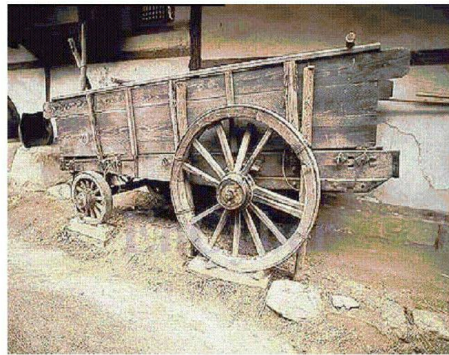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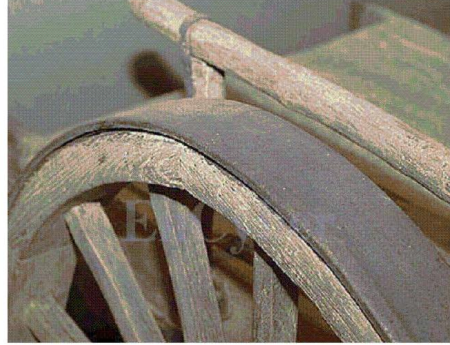
연속이라함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짐” 으로 정의된다.

순환의 과정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연속성은 순환의 기본성질이자 곧, 바퀴의 기본성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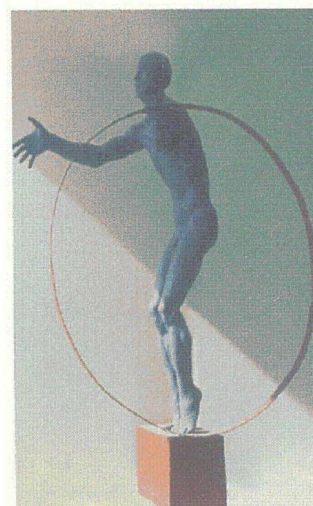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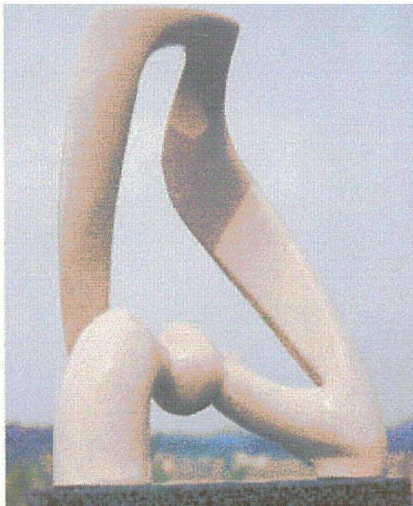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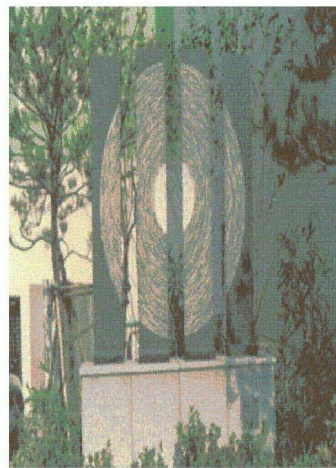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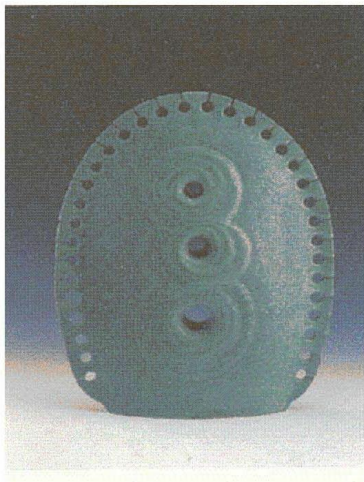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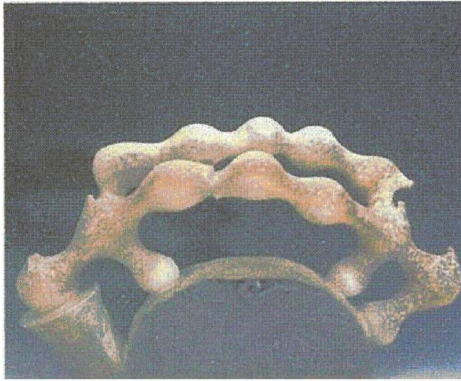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속성을 바퀴의 숙명적인 의미와 동일선상에 놓고 거기에 인간의 의지를 부여하여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속성은 반복과는 조형상 그 의미가 다르다.

【도판1】 바퀴의 다양한 이미지



【도판2】 바퀴의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들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1) 製作意圖

“예술은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다시 구성되는 표현이다” 바퀴는 우리가 새로운 해석으로 다가갈 때 삶의 모습을 축소화시킨 상징적 조형물이 된다.

따라서 삶과 바퀴와의 유기적 관계와 상징적 이미지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하여 조형화하였다.

본인의 조형의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퀴의 형태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삶을 표현하였다.

형상을 조형화 하는데 있어, 먼저 충분한 자료를 통해 주 · 객관적 시야를 넓힌 후, 본인의 상상력에 의하여 다양한 바퀴의 모습을 제작하였다.

“바퀴”의 일반적인 모습은 “원”이지만 이 과정에서 주제가 갖고 있는 본래의 외적 이미지와 특징적인 묘사를 적절히 생각하고, 절제하는 방법으로 주관적으로 해석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로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둘째, 바퀴가 갖는 순환과 반복의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다.

바퀴라는 조형물이 제시하는 운동성, 반복성, 연속성등을 통해 바퀴와 삶이 순환하고 반복하는 삶의 구조를 가졌음을 인지하고 이를 상징화 하여 작업하였다.

셋째, 바퀴의 이미지를 통하여 삶의 과정과 극복의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다양하게 표현된 바퀴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부여된 환경에서 오는 다름의 의미와 해답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희망과 염원의 메시지를 바퀴의 형상속에 투영시키고 여과하여 희망이 갖는 가치와 판단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2) 製作過程

(1) 胎土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점력이 좋고 건조, 소성시 수축이 적은 산백토를 사용하였다. 산백토는 고른 표현 질감을 나타내기 용이하고, 단색시유시 발색이 좋아 조형의 무게감을 유도할수 있었다.

<표 1> 산백토 조합비

(단위:%)

원 료	조합비
장 석	2
규 석	6.6
도 석	9
백카올린	9
핑크카올린	9
홍콩점토	18
산청토점질	22.7
산청토자질	22.7
벤토나이트	1
계	100

(2) 成 形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태토를 각각의 형을 제작하기에 용이한 기법을 사용하여 조형화 하였다. 형상을 제작하며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태토가 가질수 있는 덩어리감과 바퀴의 부분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뚜렷한 묘사이다.

본인의 작품은 바퀴를 표현함에 있어서 원의 형태를 그 출발점으로 하되, 고정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판작업을 이용한 각진 바퀴의 묘사나 바퀴의 일부분만을 묘사하는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는 주제가 갖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상징성과 다양성을 좀더 확실히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제작방법은 주로 판성형 위주가 되었으며 와이어를 이용한 컷팅기법으로 주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수있도록 하였고 화살표를 이용한 방향성의 제시로 작품의 주제에 있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釉 藥

작품 주제의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해 부식된 동 느낌의 질감이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흑유와 망간골드유를 중심으로 한 이중시유의 방법으로 절제된 색으로 인한 형상의 무게감과 주제의 강한 이미지를 극대화 하고자였으며 백매트의 부분적인 분무시유로 넓은 면적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다.

시유 후 금속솔등을 이용한 질감 표현을 통하여 작품 전체의 조화로우름과 구조적 특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 2> 흑유 조합비

(단위 : %)

원료 \ 유약	흑유A(無光)	흑유B(有光)
장석($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39	42
석회석($CaCO_3$)	16.3	25
규석(SiO_2)	5.5	18
카올린($Al_2O_3 \cdot 2SiO \cdot 2H_2O$)	21.2	9
산화망간(MnO_2)	3	3
산화크롬(Cr_2O_3)	3	2
산화코발트(Co_2O_3)		1
산화철(Fe_2O_3)	12	5

<표 3> 망간 골드유 조합비

(단위 : %)

카리장석($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5
와목점토	4
옹기토(Red Clay)	35
산화망간(MnO_2)	48
산화코발트(Co_2O_3)	3
산화동(CuO)	5

<표 4> 백메트유 조합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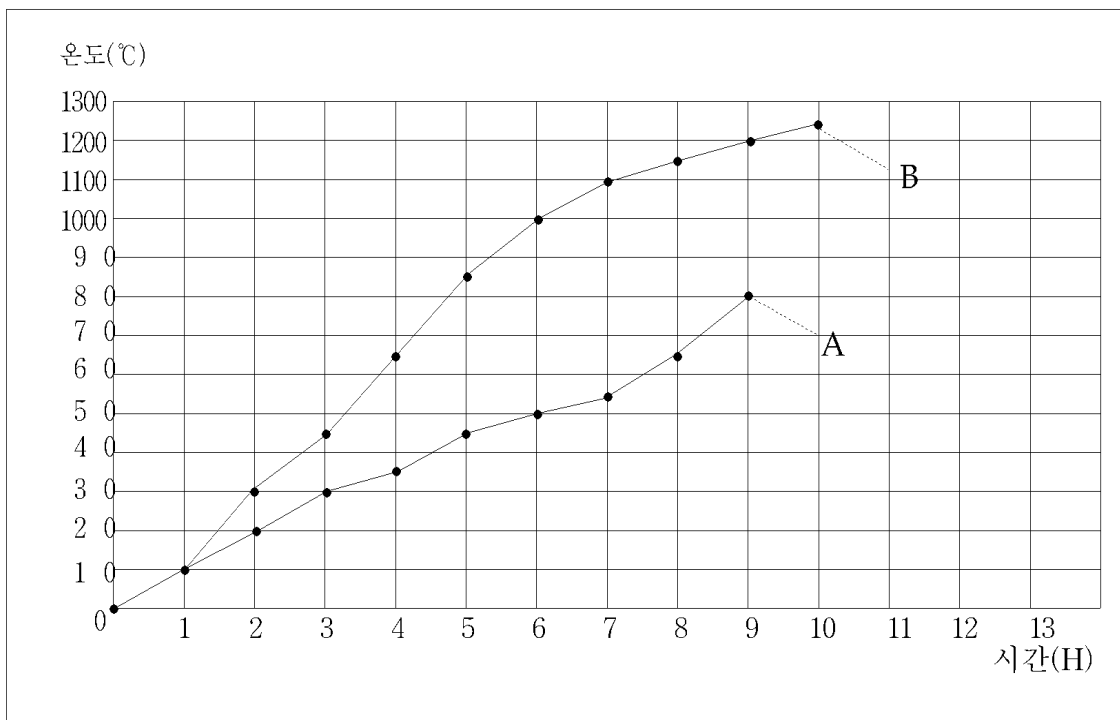
(단위 : %)

카리장석($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48
석회석($CaCO_3$)	14
카올린($Al_2O_3 \cdot 2SiO \cdot 2H_2O$)	17
백운석($CaCO_3 \cdot MgCO_3$)	21

(4) 燒成

소성은 0.7m³, 1.0m³ 가스가마를 사용하였으며, 1차 소성은 판작업시의 접합부 위가 많은 작업임을 고려하여 9시간 동안 800°C까지 하였고, 2차 소성은 10시간 동안 1250°C로 산화소성하였다.

<표 5> 소성 온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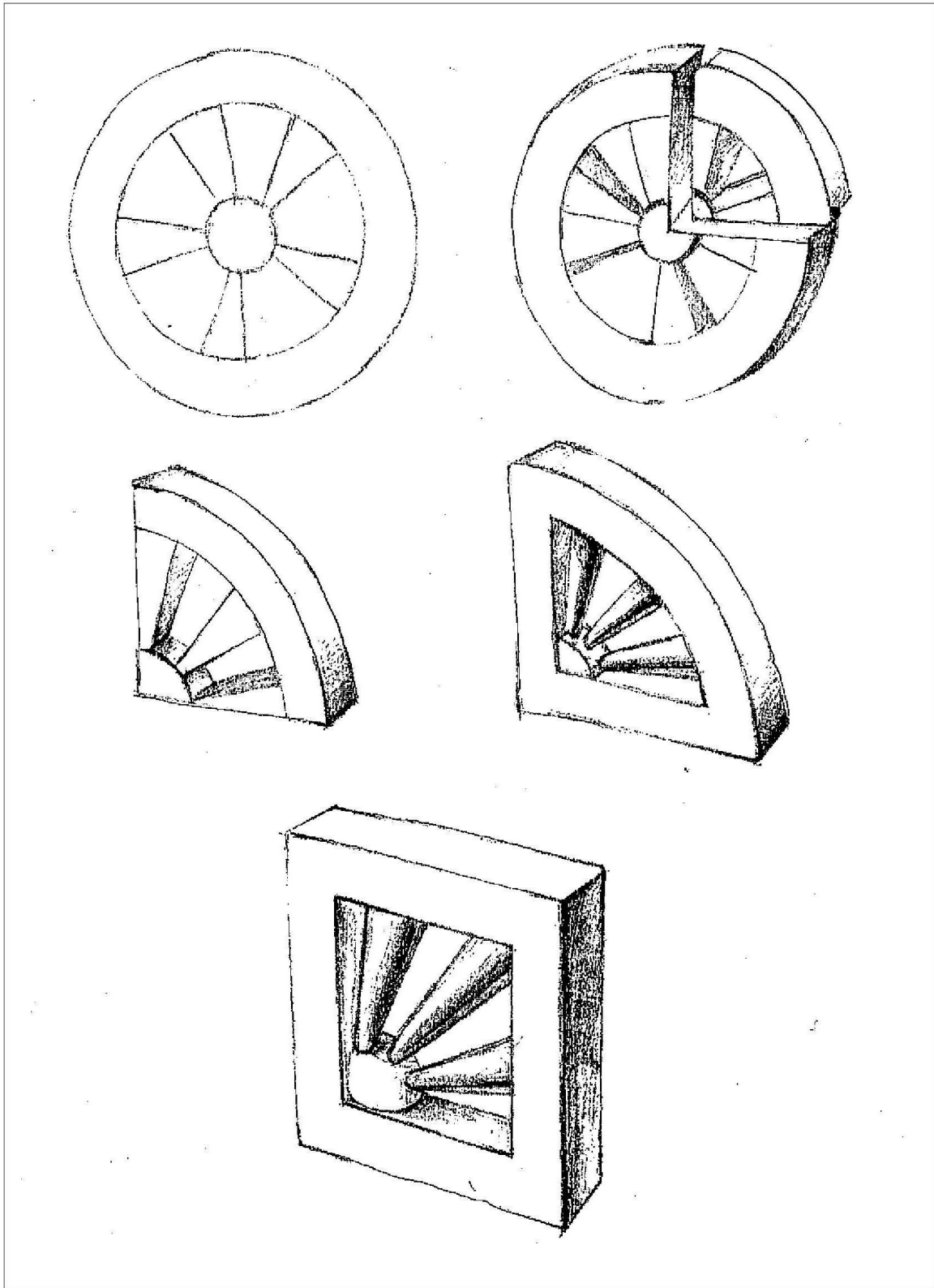


A : 1차 소성

B : 2차 소성

3) 試作品 説明

【시작품 1】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1】 내 마음의 바퀴



흑유, 망간골드유, 백매트유 / 1250C O.F / 420×570×1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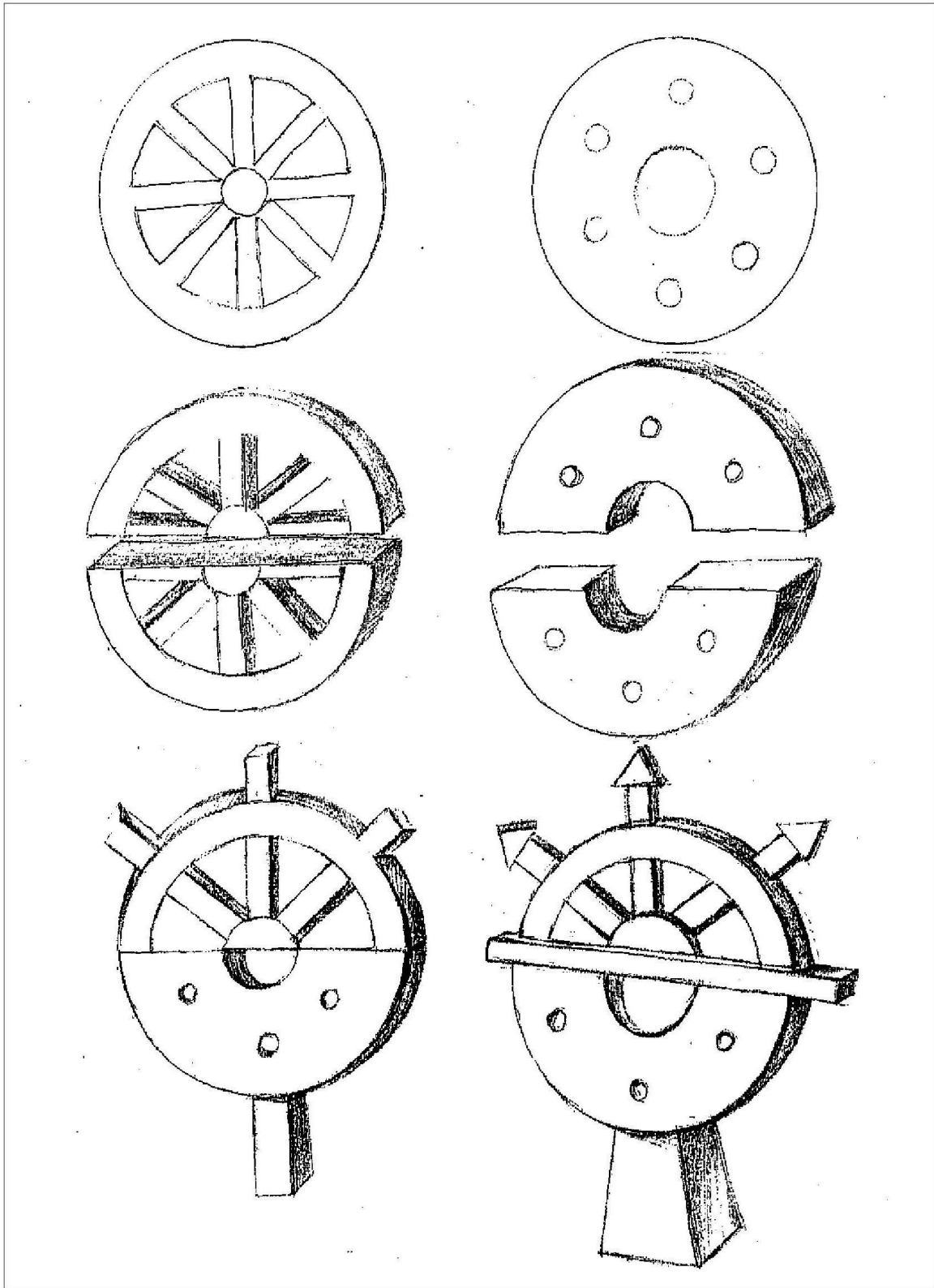
오랜세월 바람과 물살에 마모되어 매끄러운 돌이 탄생하는 것처럼 사람 역시 오래 살다보면 삶의 시야가 넓어져 성질도 죽이게 되고 타협할 줄도 알게 된다.

이 작품은 삶의 풍화 작용을 겪지 않은 나의 모습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바퀴살로 표현하였고 바퀴 프레임의 굴곡과 홈은 자신의 상승욕구를 뜻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표현을 위해 망간골드유를 이용한 두꺼운 시유법으로 화려한 금빛을 표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작품에서 안정성과 더불어 역동적이며 기운에 찬 느낌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試作品 説明

【시작품 2】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2】 내가 멈춰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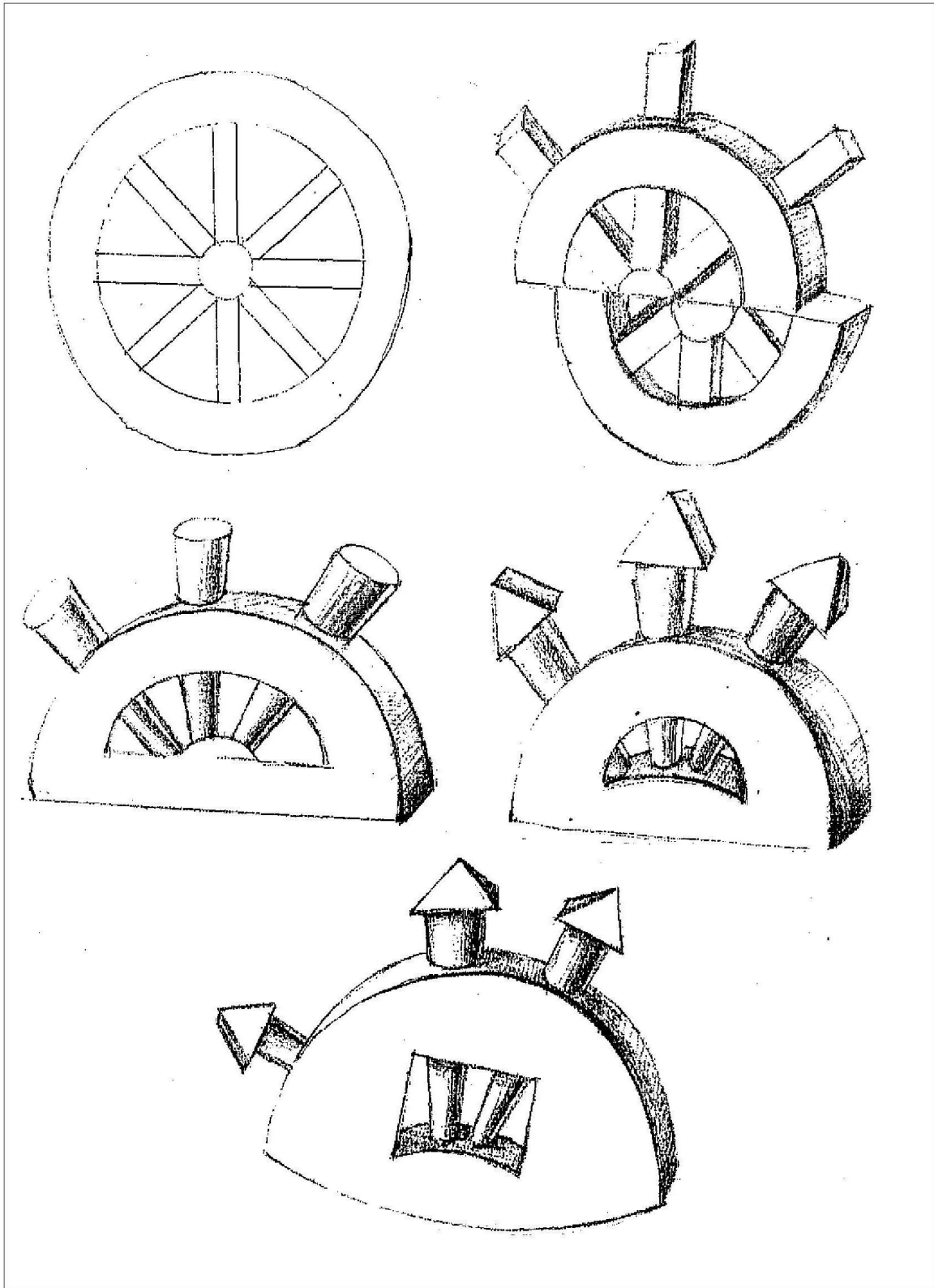


흑유, 망간 골드유, 백매트유 / 1250C O.F / 660×380×8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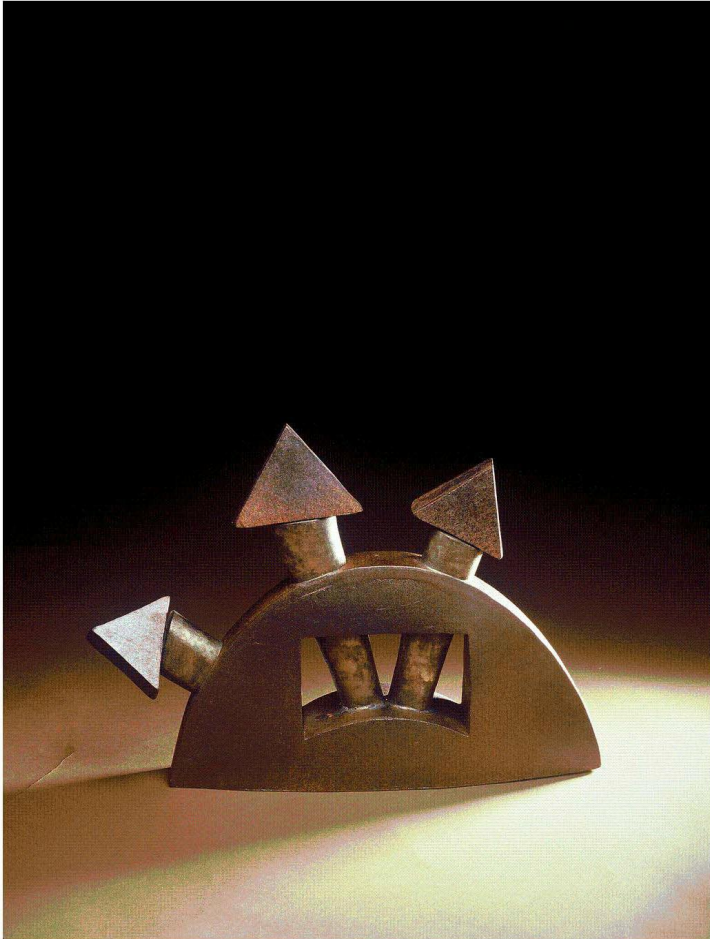
본 작품에서는 방향의 상실로 고뇌에 빠져있는 인간의 심상을 표현하였다.
삶은 항상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좌우되며 그로 인한 결과는 극과 극의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작품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의 표현을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역동적 이미지
로 표현하였고 그러한 이미지를 받치고 있는 기둥은 움직임이 멎은 순간의 내적
긴장감과 곧 이어질 선택에 대한 결연함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적 장치이다.

【시작품 3】 아이디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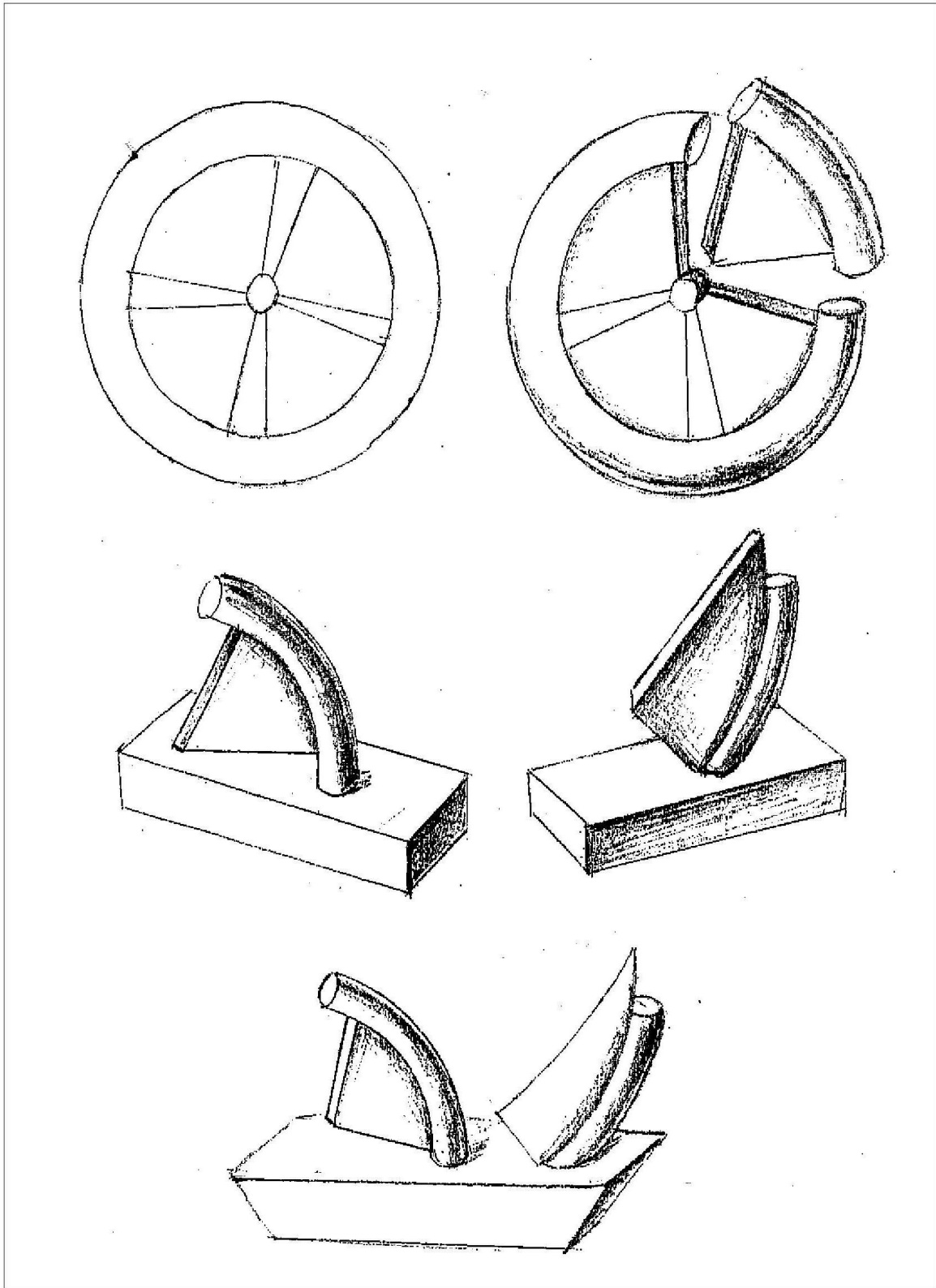
【시작품 3】 어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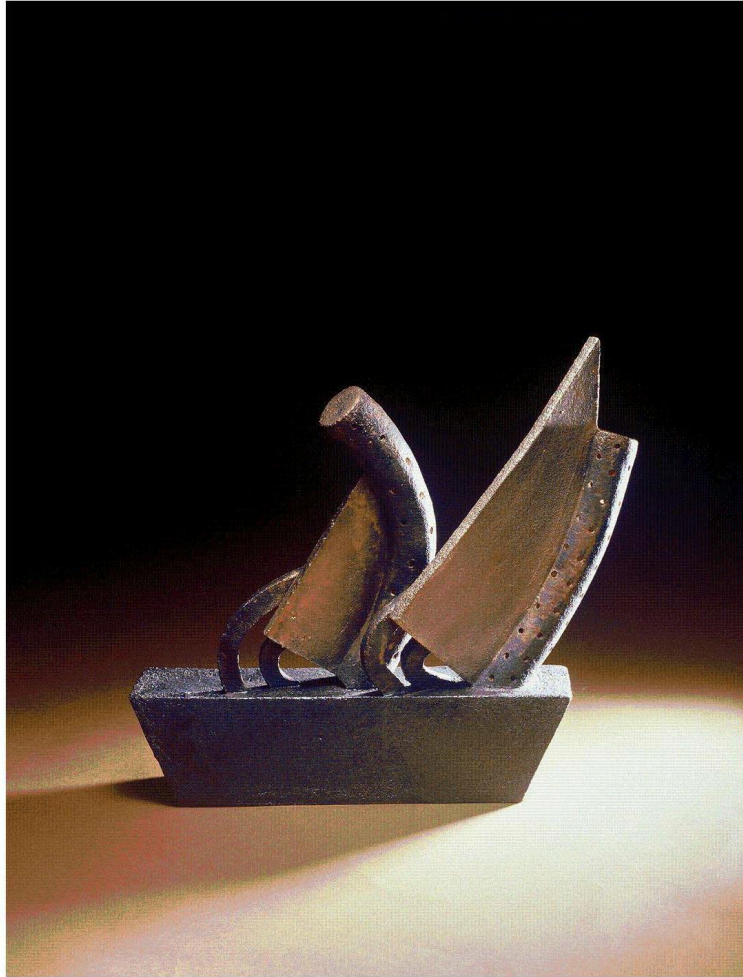
흑유, 망간골드유 / 1250C O.F / 390×410×110mm

【시작품 2】 “내가 멈춰선 이유”와 같은 맥락의 작품으로 각기 다른곳을 가르키고 있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여러 갈래의 선택을 표현하였고 작품에서 보여지는 반원 가운데 빈공간을 통하여 상황의 공허함과 심리상태에 대한 내면묘사를 시도하였다

【시작품 4】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4】 하나됨을 향한 그들의 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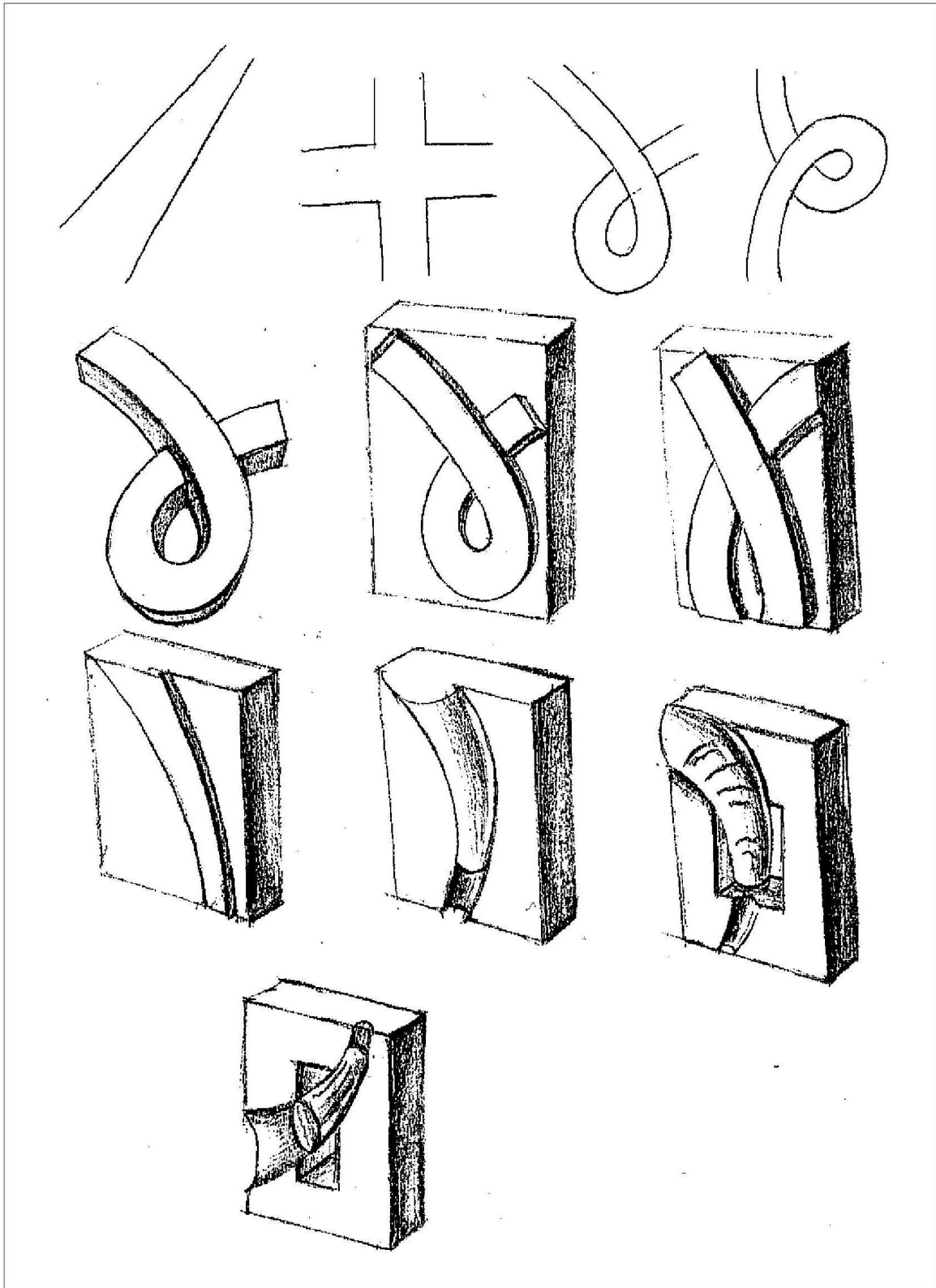


흑유, 망간골드유, 백매트유 / 1250C O.F / 430×540×1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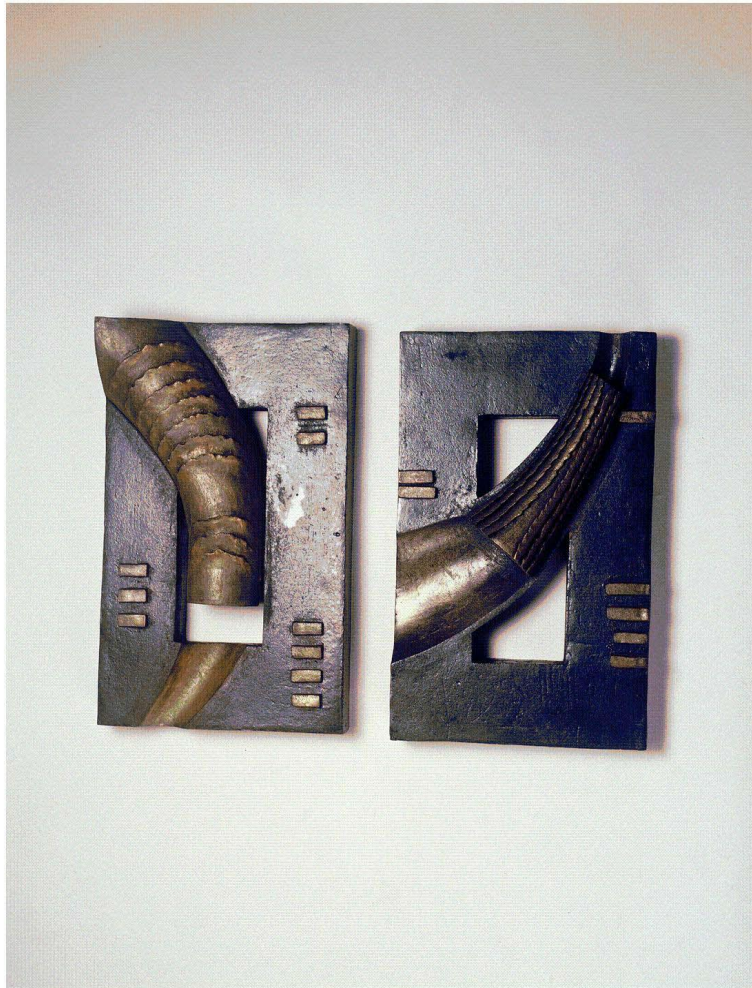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는 바퀴를 양분화하여 각기 달리 배치함으로써 두 부분을 합치면 하나의 온전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결합에 의한 또 하나의 삶의 희망적 의지를 형상화 하였다.

순환되는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체는 결국은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로 일체 되어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부분부분들이 긴밀히 연결된 유기적 구성을 이루며 그 개개인 삶을 목적으로하여 운동하며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였다.

【시작품 5】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5】 너의 관점, 나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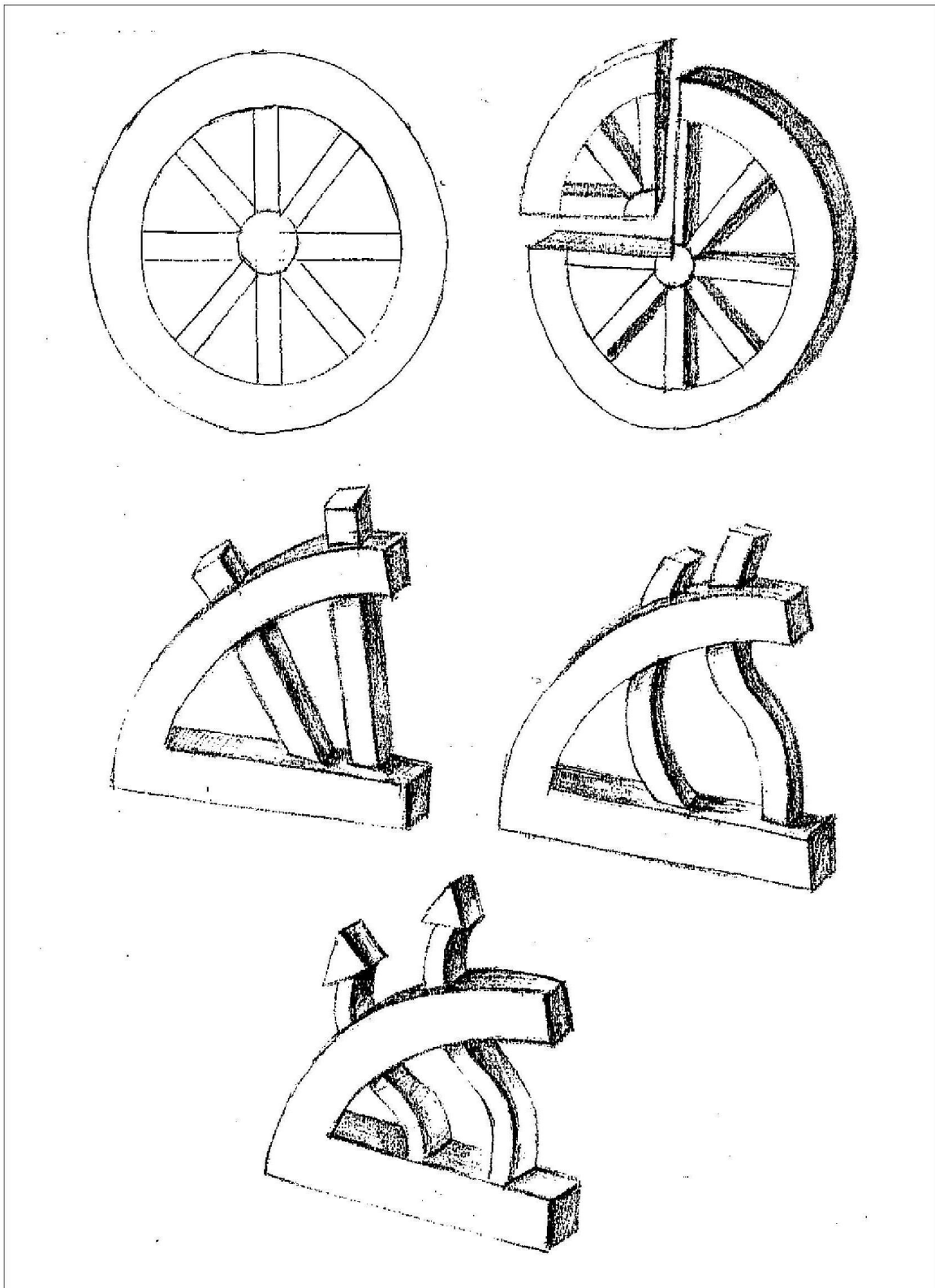
흑유, 망간골드유 / 1250C O.F / 310×470×90mm

이 작품의 의도는 삶의 윤회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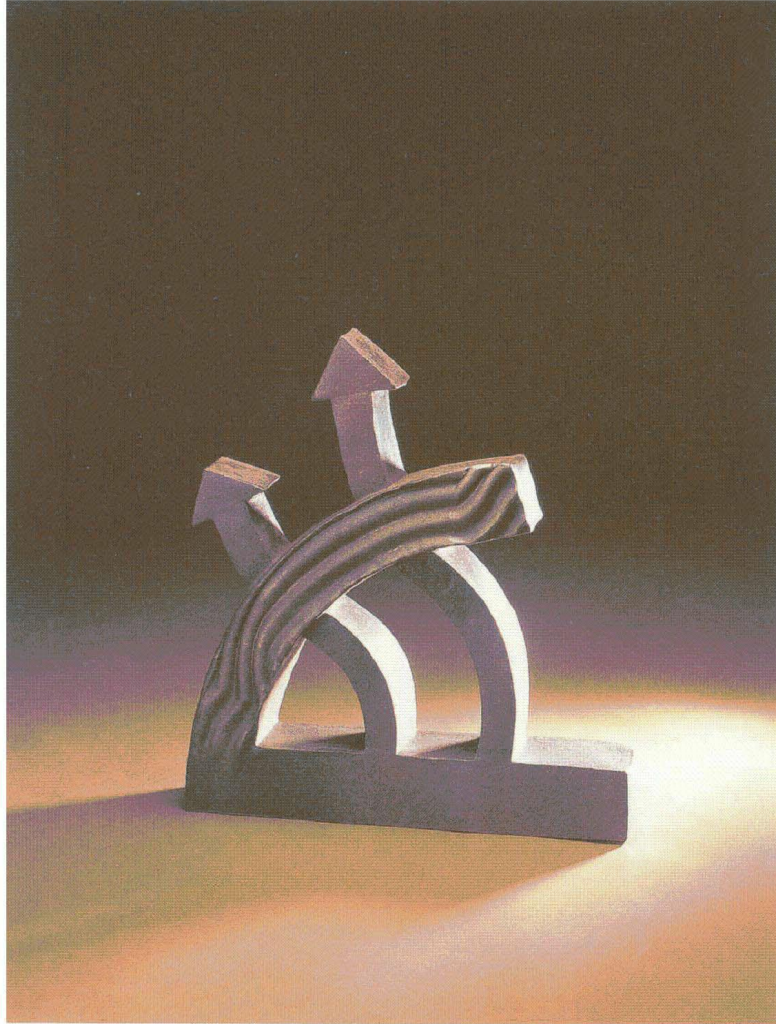
표현에 있어서 사각이라는 삶의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생성의 발랄함과 힘찬기상, 소멸의 무거움과 어두움을 양감의 표현을 통해 나타내었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대립되는 두 요소의 표현을 통해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변화의 모체가 된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시작품 6】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6】 그가 지나간 후 나는 어지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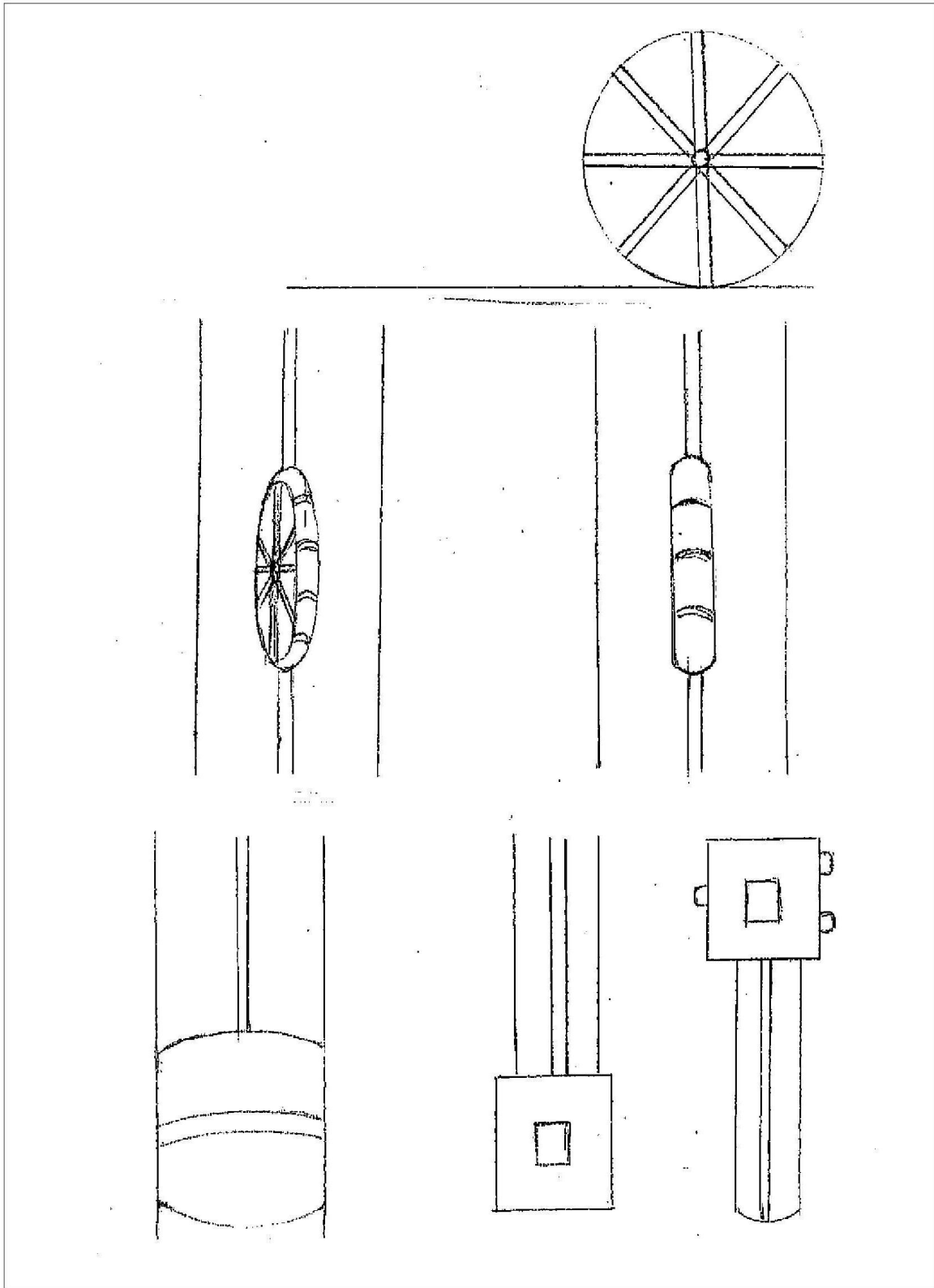


흑유 , 망간골드유 / 1250C O.F / 440×430×9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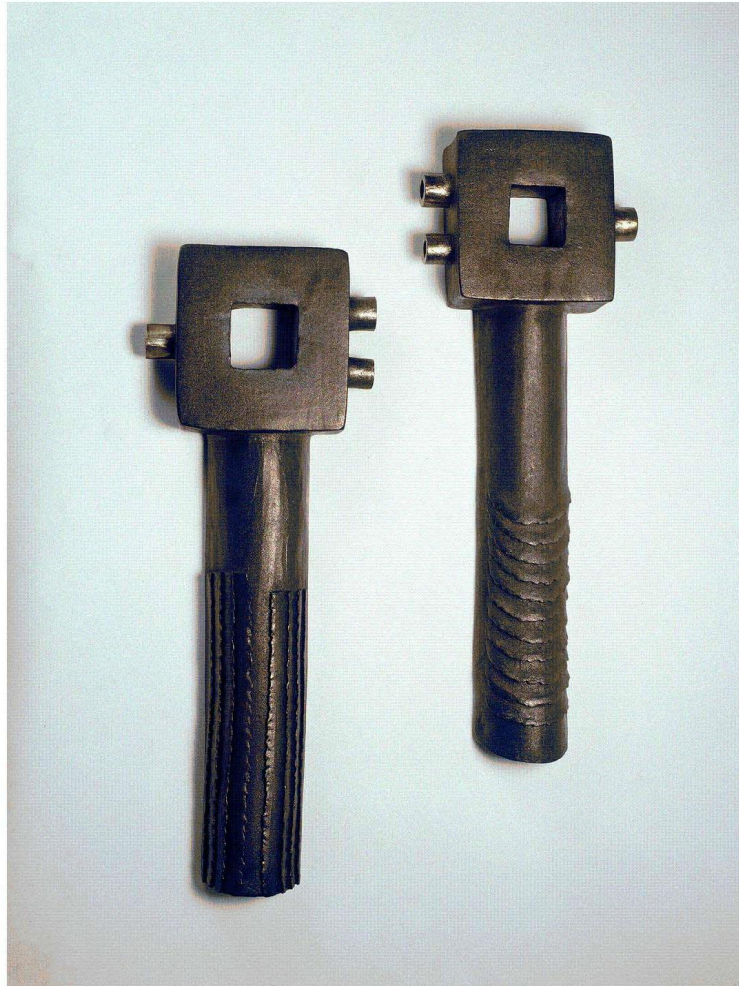
삶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고비와 역경, 또 그 후의 심리적 갈등을 통해 혼란과 번민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인간 삶의 영속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효과적인 질감의 표현을 위해 일정부분에 와이어 커팅기법을 이용하였고, 이 부분에 유약을 통한 농담(濃淡) 처리를 이용으로써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살표를 이용한 표식으로 흔들리는 인간 내면의 모습과 극복의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7】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7】 길에 대한 두가지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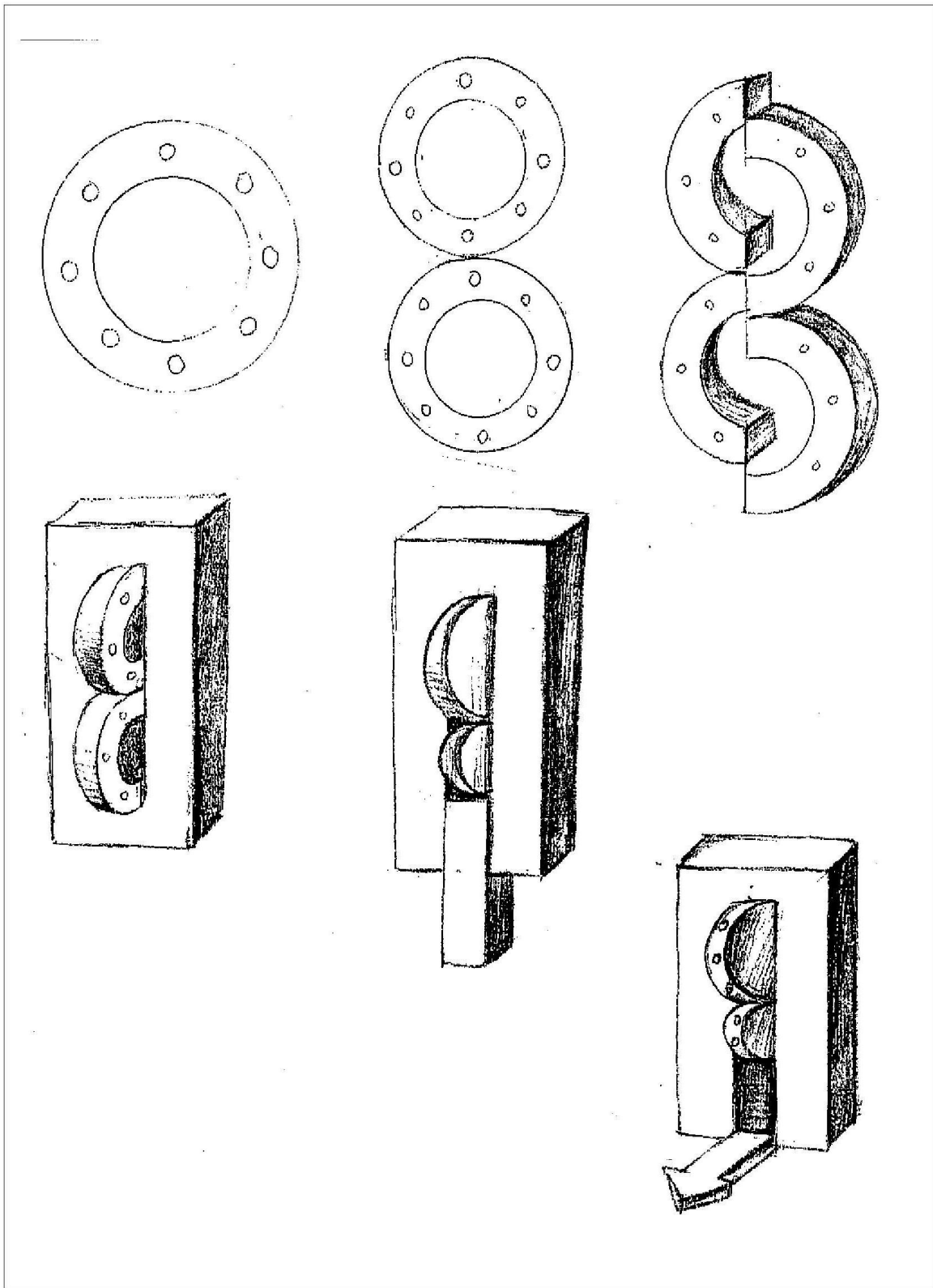


흑유, 폴드망간유 / 1250C O.F / 180×680×9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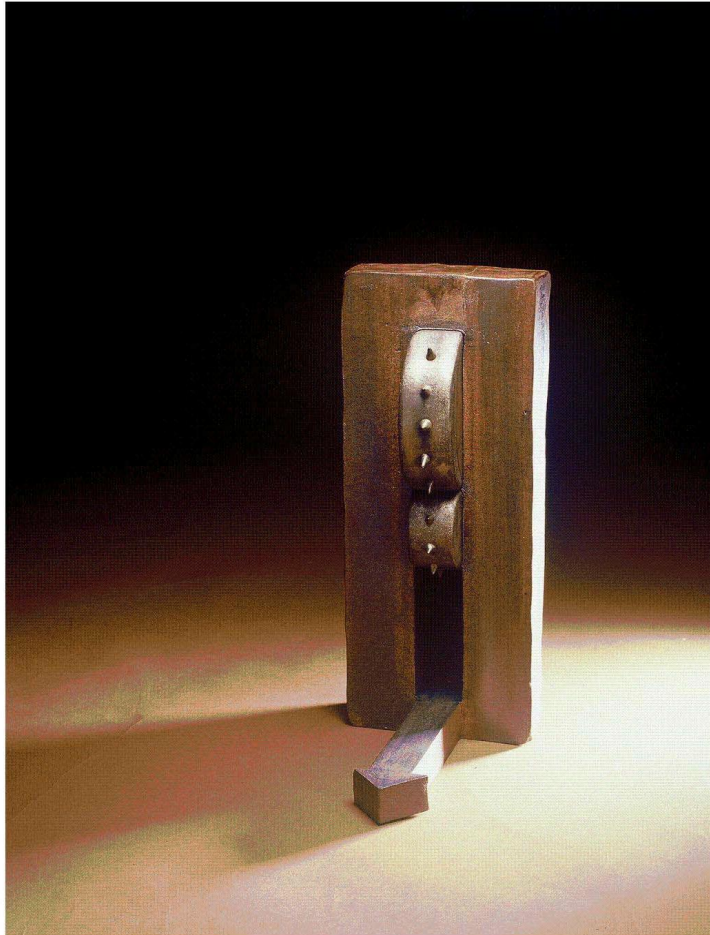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구조란 개개인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이율배반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에 표리없는 두가지 구조를 부여해 봄으로써 삶의 다양성이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다름의 표현 방법으로 똑같은 형태의 기물에 세로와 가로의 질감표현을 시도함으로써 의도를 더욱 극대화 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8】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8】 그래도 계속 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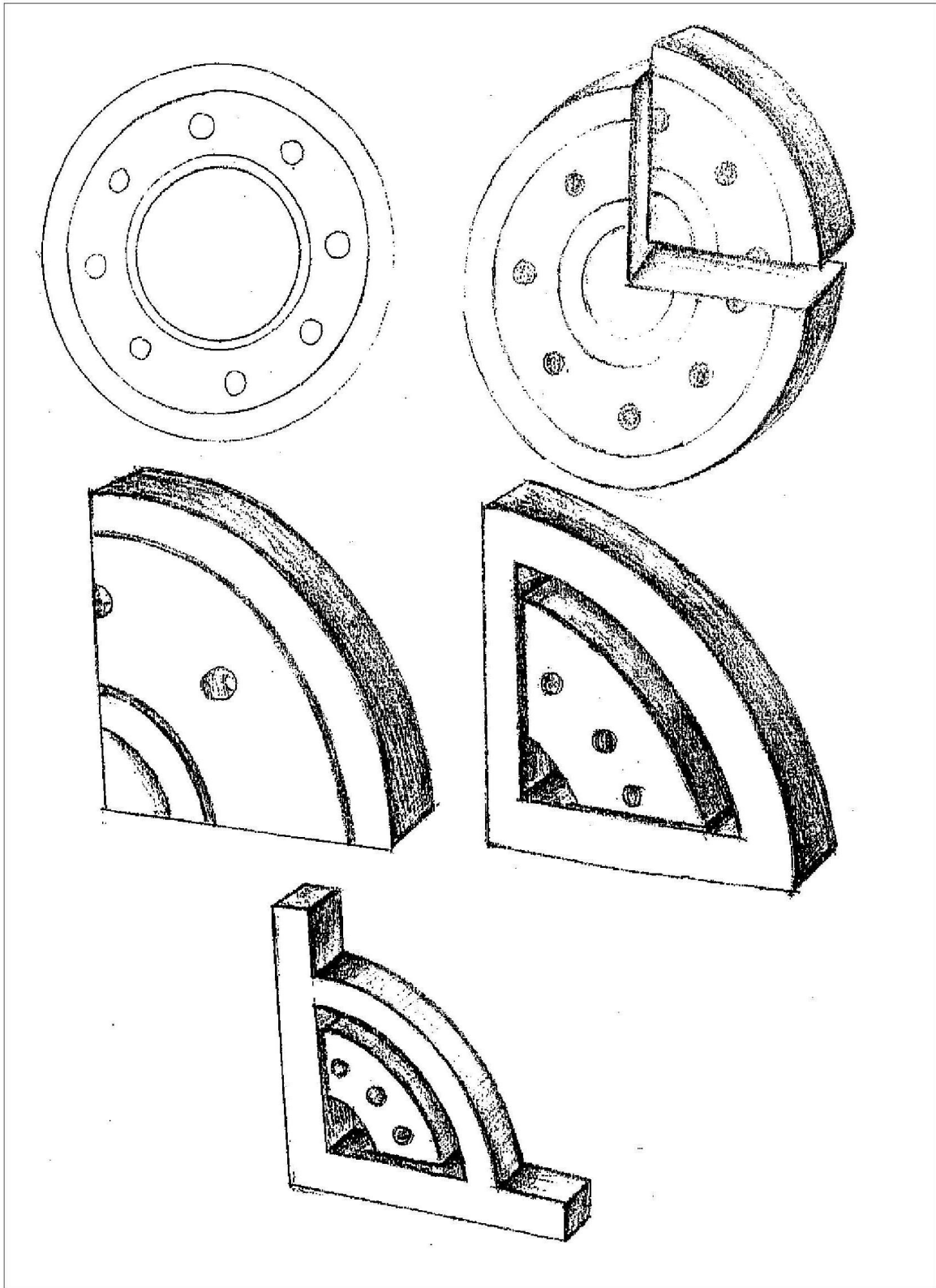


흑유, 망간골드유 / 1250C O.F / 200×470×80mm

본 작품의 전체적인 형태감에서 보여지듯 획일화된 삶의 구조 속에서 강력한 인간적 의지로 이를 거부하며 자유로운 탈출구를 향해 내달고자 하는 인간의 내면의식을 표현해 보았다.

직선으로 이어지는 선의 흐름을 통하여 앞으로 전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였고 틀안에 갇혀있는 바퀴의 면에 돌기를 설치함으로써 현재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의 감정들을 상징하는 표식으로서 이용하였다.

【시작품 9】 아이디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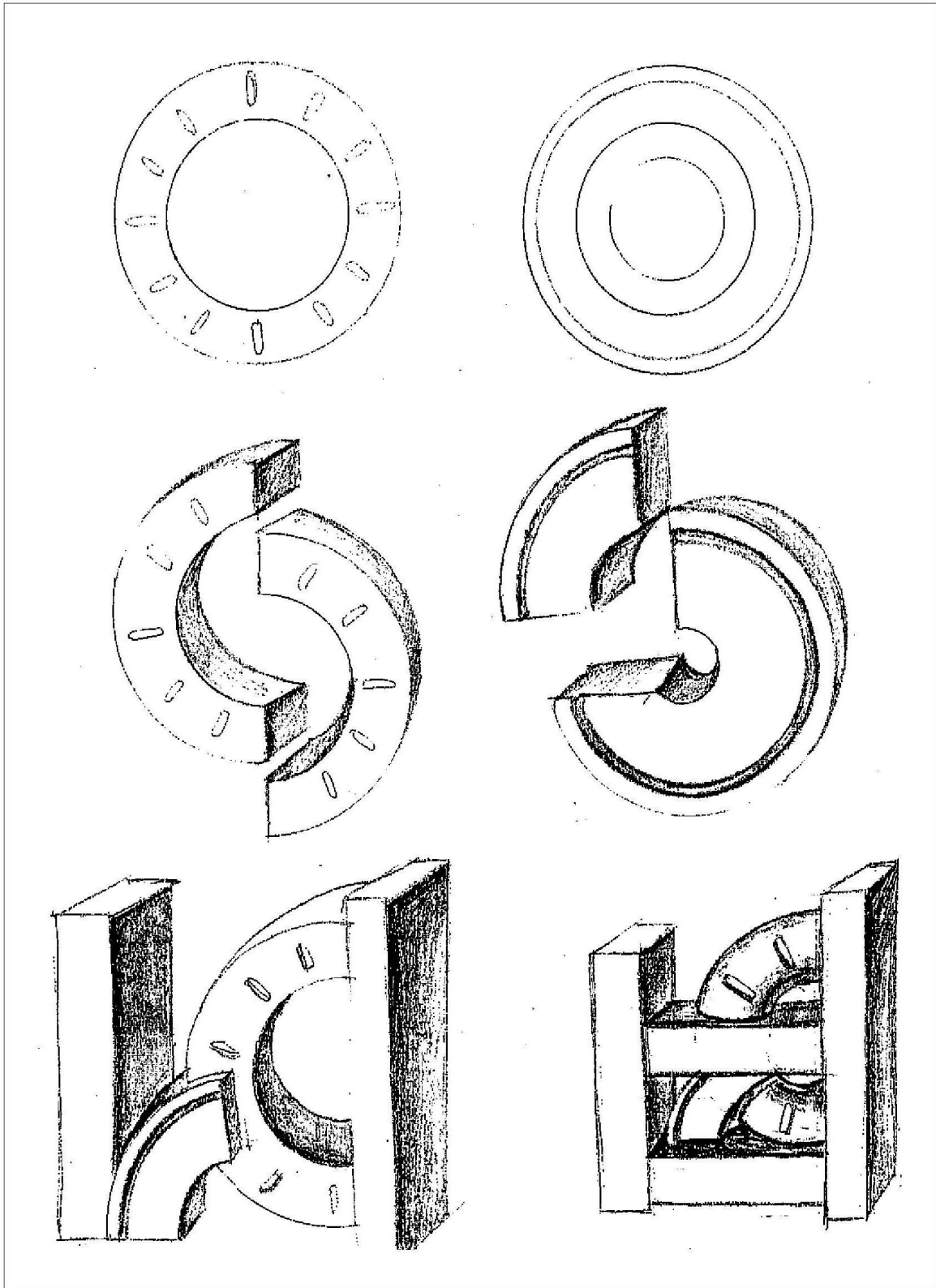
【시작품 9】 Must go!



흑유, 망간 골드유 / 1250C O.F / 390×460×100mm

이 작품에서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순환의 고리를 벗어나 지금 보다 나은 상황과 위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상승욕구를 중점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제대로 모습을 갖춘 바퀴를 표현하기보다는 그 부분적인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발견과 자신만의 존재방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집념, 열망을 표현하였다.

【시작품 10】 아이디어 스케치



【시작품 10】 바퀴, 삶 그 편린들...



흑유, 망간 골드유 / 1250C O.F / 400×530×110mm

영원한 삶은 없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서서히 노화의 과정을 밟으며 그 조직이 와해되어 간다. 이 작품은 윤회적 틀 안에서 와해되는 과정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며 소멸에 뒤이은 새로운 희망적 메시지를 예고한다.

한 생명체의 소멸이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적 흐름중 일부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Ⅲ. 結 論

인간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삶이 아닌,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삶을 살아간다.

생로병사의 끝없는 반복과 함께 윤희적 관점에서의 순환은 인간의 선택에 의한 다양한 삶의 표정들을 만들어간다.

또한 이렇듯 다양한 삶의 표정들은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삶을 정화시켜나간다.

본 연구는 바퀴의 외형적 이미지가 갖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그 순환과 반복의 메시지를 형상화하여 윤희적 틀 안에서의 삶의 다양성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개인의 극복의지에 대한 절대성을 통하여 인간 자신이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삶의 의미를 고찰한 후 참된 자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작업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구조는 인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질서이며,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결과의 순환을 통해 삶을 정화시키고 발전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를 바퀴를 이용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다양성을 인식시켜주며, 메시지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해 삶에 대한 소중함과 진지함을 일깨워줄 수 있었다.

셋째, 통일과 변화는 모든 예술작품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요구조건이지만 유약과 표면장식에 있어서 지나친 통일감으로 인하여 다양성의 추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감정을 작품에 충실히 이입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감상자에게 전이(轉移)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함을 알게되었고 깊이 있는 연구와 도전을 거듭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參 考 文 獻

- 김병억,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2000
- 이경성, 『공예통론』, 지학사, 1995
- 현대연구회, 『자동차 바퀴의 모든 것』, 현대출판사, 1998
- 『자동차 공학』, 중원출판사, 1982
- 지나 서미나라, 『윤희의 비밀』, 장경각, 1991
- 루돌프아론 하임 저, 김춘일 번역, 『미술과 지지각』, 혼성사, 1981
- 권수연, 『자연의 순환적 이미지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한루미, 『에셔(M.C.Esher)작품의 이미지 순환 연구』, 환영의 공간속으로 /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창훈, 『사각과 원형태의 상징적 표상을 통한 작품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00
- 최승주, 『순환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ABSTRACT

A Study on the Ceramic Arts with the Image of Wheel

Lee, An Nyoun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Life contains the quality that every event is formed, grows, and disappears according to consistent rules, and it is a process that continuous cycles and reiterations recur.

Although an individual form perishes eventually, the life continues on by circling itself with a start of new generations.

This study methodologically interprets the process of cycles and reiterations inherent in the daily life through a metem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thoroughly describes a variety of life features through an individual form of "wheel". In other words, each individual must recognize the variety of life features granted differently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moment in the cyclical aspect of the life, and human beings must become the center of the life by acknowledging the absoluteness of personal wills.

Therefore, this study places the outer image of the wheel in its inner formation process at the same line with each individual and analyzes it, not as a mere symbolical meaning of expressional figure, but as another

self-being.

For the development of actual works, the fundamental parts of the life in their self-restrained and abridged images are examined, rather than focusing narrowly on just realistic descriptions of the wheel's outer images. In addition, a true picture of human beings, which they desperately search for ways to escape from identity crises caused by modern society, is portrayed by presenting the directional nature using arrow shapes.

Furthermore, mass effects of materials, which employed in the works, maximize inner force of the theme, and transformation process is reviewed to examine the variety of life features and our desir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s for the calcination, the initial one was oxidized at 800C, and the secondary at 1250C applying mainly dark colored glazes, such as black or manganese gold to maximize the sense of weight.